

國際情勢의 변화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



張 和 洙

(중앙대학교수·경제학박사)

■ 목 차 ■

- I. 美國의 압력과 한국NICs경제의 三重苦
- II. 新팍스·아메리카나의 위력과 한국 경제의 新局面
- III. 걸프戰爭이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IV. 國際情勢의 변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對應策

I. 美國의 압력과 한국 NICs경제의 三重苦

요즈음 한국경제는 不景氣의 연속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여건이 뒤숭숭하고 共産圈의 급격한 개방이나 개혁의 물결에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여의치 못하며 동서독이 순식간에 완전한 통일을 이룩했는데도 우리는 통일보다 시베리아개발과 북방정책이 떠들석하다. 특히 걸프전쟁이 터지면서 石油위기가 감돌고 전쟁비용을 대라, 군대를 보내라 등등 미국의 주문은 物心양면으로 벽찬요구가 겹쳐와서 그야말로 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풀이하자면 첫째, 미국의 끈질긴 市場開放압력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경제가 NICs(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크게 발전했으니 이제 는 미국물건, 금융 뿐만아니라 방대한 하이테크무역, 또는 서어비스무역 예컨대 지적소유권이나 증권, 부동산, 신용카드 등등 몽땅 터놓고 미국의 赤字 좀 줄이는 데 협력해야 마땅하다는 강압이다.

그러나 한국의 NICs 경제는 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하이테크산업, 별들의 전쟁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이들의 國際下請을 받아서 불과 몇년간 얻어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무역黑字가 났다는데 연유할 뿐, 실은 속빈 강정이요, 부가가치국산화도 크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과소비와 輸入수요만 월등히 커져서 결국 한 때 自立 할수 있는 꿈조차 요즈음 멀어져가고 또 다시 종속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인데 미국의 통상마찰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우루과이라운드까지 국제적인 통상(무역)정책으로 결정난다면, NICs가 받는 타격은 제일크고 특히 한국은 입맛만 늘어서 輸入은 농산물까지 물밀듯이 커지고 반면 생산성약화, 기술부족, 원자재부족 속에 물가폭등까지 겹쳐서 단단히 속병든 경제가 몇 년간 심한 타

격을 입힐 것이 틀림없다.

둘째, 미국은 작년부터 갑자기 한국경제가 북방개발을 떠맡아야 되고 특히 中國보다도 소련쪽의 시베리아 극동개발에 무조건 막대한 투자를 해 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갑자기 소련의 고르비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노대통령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서 만나게 하더니 우리 빚도 340억달러나 남아있는데다가 국제수지赤字가 크게 쌓이는 한국보고 소련에다가 50억달러인지 60억달러인지 경제원조를 주면서 시베리아개발에 참여하라고 극성이다. 물론 미국 나름대로 현재 西部政權이 30년을 지속해왔으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주축으로 한 거대한 세계독점자본(예컨대 펠론財閥등)이 뒤에서 도사리고 앉아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韓國보고 소련에 대한 원조를 권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땅히 뒷돈도 값싼利子로 대면서 밀어줄 것이라고 믿어지는바가 없지는 않다. 그것은 이사업을 주선한 미국의 「백텔」회사가 이미 그 쪽 巨大資本의 창구이고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10여개를 비롯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은 공지의 일이며 레이건政權때 미국의 국무장관 술츠는 백텔회사의 전무이사 출신이었고, 국방장관 와인버거는 백텔회사의 社長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셋째, 이번 걸프戰爭에 미국은 한국보고 30억달러의 전쟁자금을 대라고 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8억달러를 더 내라고 해서 우리는 追更예산을 짜서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미국은 걸프전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石油價格을 높이는게 목적이고 또 별들의 戰爭을 실험해보고 재고품을 처리하는 것이 당면한 목적이지만 한국보고 돈대라 군대보내라 등등 강요하고 말안들으면 전쟁복구사업에 찌꺼기도 끼워주지 않겠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통

상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시장개방압력을 더욱 조이겠다는 등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로서 世界의 政治經濟를 새롭게 주도하면서 별들차원의 하이테크무역과 서어비스무역을 독차지 하려는 미국의 이른바 新팍스·아메리카나(모든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중심으로 엮는 것, Pax-Americana)의 위력이 한국에도 여지없이 밀려와서 당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三重苦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큰 타격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항력이나 내성은 있는것인가?

II. 新 팍스·아메리카나의 위력과 한국경제의新局面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不景氣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휘몰아쳐오는 이른바 한국적인 스테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한편 그때까지 80년대 후반 赤字를 누려왔던 국제수지가 赤字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輸出競爭力이 떨어져 버렸다.

이같은 현상을 지적해서 많은 기득권층은 保守主義와 自由民主主義를 신봉하는 입장에서서 말하기를 2천3백건에 달하는 勞使紛糾가 물고 온 勞賃상승압박과 다른 한편 美國이 종이돈달러라는 不換紙幣를 가지고 환율절상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급격히 한국경제가 파행적으로 위약해졌다고 진단하였다.

이로서 미국식 화폐금융정책과 달러인플레이션을 꿰뚫어 보고있는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다같이 한국의 對應政策이 국내의 인플레이션정책이라고 묵시적인 합의하에 처방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부터 대미달러환율은 1달러당 한화 560원선까지 切上되어 모든 산업의 이윤율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내려앉는 점부터 다시 급속히 切下되기에 이르러 현재 대미환율은 1달러당

736원선으로 무려 174원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환율조작국이라든지 불평등무역 상대국이라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 이처럼 허약한 경제인가를 실감하고 있는 처지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의 인플레이정책은 필자가 일찌기 지적한 바 있지만(본 주류공업 1988년 9월호) 전혀 수출경쟁력을 높이지 못한채로 오히려 그이전의 평균 약 48% 상승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생활급에도 못미치게 감동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결국 생산성향상이나 제품의 품질개선이나 技術革新 및 경영합리화에 미치지 못한채 勞賃을 줄이고 이로서 原價절감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보려는 시도가 오히려 노동력 확보도 어렵게 만들고 생산효과도 없이 경영악화와 서민들의 빈번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한때 新興工業國의 선두주자요 아시아의 네 마리 龍중에서도 다른 세나라 즉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다 같이 중국인들이면서 지방정부이거나 도시국가에 불과한 반면 한국만이 전형적이 NICs로서 先進國의 문턱에 다달았다고 자화자찬해 마지않던 80년대 후반 한 5년간이 반짝경기로 사라지고 말았다.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며 어디서부터 오는 영향이 쇠잔한 결과에 귀착시키게 만들었는가?

한말로 한국경제는 처음부터 國際化로 경제개발을 착수한 셈이고 1960년대는 南北問題와 UN 개발 10년계획 등 UNCTAD의 국제여건에 힘입어 輸出立國의 길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고 越南戰爭의 特需나 1970년대 오일파동 그리고 1980년대 對蘇包圍網구축에 편승해서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기인된다고 말할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변화는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이 1960년대 급속히 감퇴되고 70년대에는

닉슨닥트린을 통해서 스미드소니안체제에 잠정적으로 돌입하면서 금기야는 달러貨의 金兌換을 정지시키고 드디어 1976년에는 영원히 金이란 국제통화는 폐화 시키면서 달러貨는 不換紙幣가 되고 흔들리는 달러 信賴度를 확보하기에 인간힘을 다하는 과정에서 미국내에는 쌍둥이 赤字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늘고 대외적으로는 G7(그룹 7)등 강대국들에 의해서 世界經濟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新國際經濟秩序(NIEO)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마치 두발 自轉車를 타듯이 나아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세계경제는 글로벌리즘이 통상무역을 중심으로 世界시스템화로 모이게 되고 각국의 경제성장 보다 우위로 앞서서 무역부분이 더욱 주도하기에 이르면서 여기에 자본주의 국가들도 新國家主義를 취하는 한편 多國籍企業들은 새로운 세계독점자본으로 군림하기에 이르고 자기네들의 企業內 무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新重商主義로 나타났다.

한편 共產國家들도 소련을 위시로 종래의 自力更生식인 스탈린식 一國社會主義經濟와 아우타르키는 급속히 소멸되고 개방과 개혁속에 全世界속에 편입되면서 社會的 市場경제 체제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틈에 미국은 옛 영광을 되찾아 보려는 新國家主義의인 노력이 이른바 新 팍스아메리카나로 즉 모든 世界經濟秩序를 미국 중심 속에 주도하려고 나섰다.

이를 위해서 달러인플레이션을 70년대 이래 의도적으로 도입해서 당시의 오일머니를 감가시키고 이어서 고도의 하이테크技術과 거대한 서어비스産業을 토대로 石油가격을 1바렐당 34달러로 부터 11달러선까지 3분의 1로 급감 시키면서 소련에 대한 경제기술봉쇄와 무한 군비경쟁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 1982년 이후 대소포위 정책은 결국 소련을 페레스트로이카(開放)와 그라스노스트(改革)로 끌어 내는데 성공하고 이의 지도자는 고르바초프가 나서서 드디어 美蘇간에 冷戰종식과 군비 축소 등 화해 무드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新팍스·아메리카나는 石油價를 올려야만 소련의 財源 확보가 되고 英國의 北海油田에 채산이 맞으며 中東에 미국편의 새 질서를 구축하며 美西部政權의 資本확보와 지지기반의 확대가 가능하게 됨으로 결국 걸프戰爭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별들의 전쟁(스타워즈)식의 新技術을 실험해보고 과시하면서 철저히 쿠웨이트와 이락의 油田들의 파괴를 방관 하였고 이들의 戰後 復舊費는 3천억달러에 이른다. 이미 美백텔회사는 이같은 예측을 일찌기 계산하고 있었다.

Ⅲ. 걸프戰爭 이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경제가 NICs 경제로서 지난 85년 이후 5년 동안 반짝하면서 貿易黑字를 내고 高度工業國이 되고 國際下請을 도맡아 최고로 재미를 보던 시절에 이를 마치 한국이 底力이 있고, 資本蓄積이 상당히 쌓이고, 영원히 好景氣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커다란 오판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때 國際情勢는 미국이 그동안 알맹이 즉 세계독점자본력은 다국적기업으로 이미 빠져나아갔고 미국국민들만 세금내기에 바쁘고 사회보장은 엉망이며, 미국정부도 財政赤字에 시달리고 한편 국제관계에서 貿易赤字에서 못헤어나 年間 2천억달러씩 쌓인 債務 빚이 이미 1兆달러가 넘었는데도 그나마 1990년 3월 이후 不景氣는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有效需要는 신통

치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수 없이 199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東歐 및 소련 共產국가들의 개방과 개혁 물결에 편승해서 景氣回復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탈출구는 그 정도의 낮은 生活水準을 지닌 共產국가들의 개방이나 한국을 앞세운 시베리아 극동개발 따위의 有效需要만 가지고는 상당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

이로서 미국의 그동안 하이테크軍事武器도 테스트 해보고, 너무 많이 쌓인 在庫品도 우방국들, 예로서 독일, 일본, 한국 등 다국적군에 참전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비 지원으로 팔아 충당해 볼 수 있는 一石五鳥格의 이른바 「걸프戰爭」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쿠웨이트가 侵略당하도록 방치하였고 완전히 「별들의 戰爭」처럼 이락軍을 손발 한번 못써본채로 궤멸시키고 말았다.

「걸프戰爭」을 지적해서 지난 2월 6일에 행한 요르단의 후세인國王은 연설하기를 “이번 전쟁만큼 잔인한 전쟁은 없었다,” 이어서 “가장 힘센 나라들이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위협하기 짝이없는 현대식 무기를 마구 퍼부어 대고 있다”고 말하면서 美國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피해 다니면서 戰爭으로 치달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걸프戰爭을 誘導하였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걸프戰爭을 필요로 하는 의도는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 여건들 이외에 “油價上昇” 또는 “高油價”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말할 것이다. 첫째로 10여년 동안 出血油價로 경제 파탄 속에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항복하고 나온 고르바초프와 소련의 財源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英國의 北海油田이 최소 原價(약 16달러선)이상의 국제원유가격은 보장해 주어야 되겠고 미국西部政權을 지탱해 주는 中東石油자본의 보호와 사우디, 이집트 등 美國지지세력을 중심한 中東의 新秩序가 미국중심으로 강력히 再編成

될 필요가 절실하며 끝으로 EC등 유럽과 미국의 경기를 살리고 日本이나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기에 타격을 주는일도 충분히 계산에 넣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어떻든 국제原油價는 미국이 「걸프戰爭」이후 기대한만큼 「高油價」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 때 1바렐 당 30~40달러선에 귀착되리라고 전망했던 油價는 현재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原油供給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18~20달러미만선에서 의외로 값싸게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걸프戰爭」이후의 타격이 아시아의 不景氣로 몰아쳐왔고 제일 큰 피해국은 日本이 아니라 바로 韓國經濟가 몽땅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미국의 주도하에 약 30개국을 동원해서 多國籍軍을 편성해서 약 600억달러에 달하는 戰爭費用을 지원토록 만들고 아시아의 자원을 歐美와 中東지역으로 돌려버린 뒤에 日本만 해도 그동안 언제다칠 石油위기는, 이에 대비해서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엄청난 物量은 事前에 비축하거나 스스로, 나아가 石油開發 輸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石油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도 단기戰爭에 큰지장을 받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지난 80년대 후반의 반짝경기를 누렸던 NICs경제에서도 低金利, 低換率, 低油價등 3低시대에 특특히 험악어 貿易黑字를 누렸던데 불과했었다. 오늘 「걸프戰爭」이 몰아닥치자 갑자기 인플레이속에 불경기로 물리고 輸出 경쟁력은 떨어져 생산력저하, 기술낙후, 낮은 附加價値生産 및 안이한 利權경영등이 그대로 국가경제 전체의 스테그네이션(停滯)를 들어내 놓고 말았다.

「걸프戰爭」은 그 본질적 운동법칙이 「아시아·太平洋」시대의 經濟圈中心을 다시 歐美쪽으로 돌려보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전역에 걸쳐서 不景氣

는 이미 엄습해왔다. 우선 資源을 가지고 공업화가 스파트되기 시작한 東南亞의 「아세안국가」들이 정체되고, 新興工業國으로 흑자시대를 누렸던 아시아의 네마리 龍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은 株式폭락이나 金融경색이 보여 주듯이 生産性은 크게 저하되어 있는데 公共料金の 대폭인상과 物價不安이 한국경제를 좀 먹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국가도 개인도 경제활동에 관한한 생산적인 측면에서 利潤추구가 활용되지 못하고 利權결탁이나 강동株式 및 地下경제(非實名制)속에서 걸 좋은 先進경제로의 진입을 의형상 과시하고 있는 점은, 한국경제의 최대의 취약점이다.

IV. 國際情勢의 변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對應策

「걸프戰爭」이후 전망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 종전후 原油價는 당분간 적정가격으로 바렐당 18~20달러선을 유지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정략적으로 높은 유가를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 전쟁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증산 정책이 나올것이고 이로서 공급과잉현상이 일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걸프전쟁전 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 기준일 것 같다.

둘째, 경기 전망인데 걸프전쟁과 원유가 안정 및 전후 복구수요가 예상되긴 하나 실제로 그쪽부문의 수요는 선진국 경기를 크게 호전시킬만큼 규모가 크지는 못한 것 같아 중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은 작년 보다도 둔화될 전망이며 한편 미국이 인플레 우려로 금융완화가 지속되는데 반해 마르크화나 엔화등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자금 초과수요가 일어나고 있어 경기 불황국면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과 같은 NICs국가들은 이번 걸프전쟁으로 不景氣가 덮쳐 왔으나 다행히 단기

전쟁으로 종식되는데 다가 中東복구에 약간의 참여가 기대되어 현재 보다는 景氣上昇局面이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가장 큰 국제정세의 변화는 그 본질이 어디까지나 미국중심의 팍스·아메리카나를 再編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바 世界시스템으로 향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있는 소련 및 東歐共產圈의 개방·개혁까지 가세해서 미국의 新國家主義적인 통상마찰이나 市場開放압력이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이는 우류과이라운드(UR)같은 국제통상협정(즉 국제무역정책)을 물고 오려고 시도하졌지만 이것이 늦어지거나 여의치 못할 때는 틀림없이 雙務的인 협상이나 相互主義를 통해서 한국에 압력을 가할것이 틀림없다.

이경우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는 다른한편 EC와 같은 地域經濟協力(Regionalism)과도 마찰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을 중심한 亞細亞·太平洋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이를 방해하거나 협력할수도 있다.

방해하는 경우는 미국의 신국가주의와 세계적인 新重商主義가 결합되어 위력을 크게 발휘할 때이며 中蘇축과 美日축이 한반도의 南北關係改善을 전제로 거대한 經濟權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항하고 또한 역으로 협력을 받을수도 있을 것임으로 항상 한국의 對應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할것이다.

90년대를 맞이한 한국경제는 또한번의 거듭나는 대전환기를 치러야 될 줄로 안다. 그것은 국제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기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고 다른한편 국내정책이 균형 발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國際情勢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情勢變化에 대한 美國의 新팍스·아메리카나를 위한 세계질서의 재편성이 충분히 분석되었고 특히 미국경기가 89년 후반

기이래 財政위기를 겪으면서 90년 3월이후에는 不景氣까지 겹쳐서 이른바 「東歐혁명」이니 「平和配當」이니 내세우면서 상당한 改善效果를 거두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드디어 「걸프戰爭」으로 多國的軍을 이끌고 多國的財政부담을 이끌어 내는데 일단 성공한 셈이다.

이같은 작업은 일찌기 G7(그룹 7개국)들과 합작해서 마치 세계경제질서는 集團指導體制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해오면서 공동책임과 강대국들의 위력을 발휘하였지만 실은 미국이 맹주요 주역일 뿐 여타국가들은 돌리리로 팔려다니는 셈이다.

따라서 NICs란 형태의 한국경제가 어차피 美國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따를 수 밖에 없고 크게 피해가 없는 한 따라 주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미처 한국실정도 잘못이해 하면서 미국의 권익만을 강요하는데 전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될일이며 더구나 한국경제 나름의 스스로의 自救努力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만 美國도 때로는 깔보지 않게되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국제화속의 한국이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낼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서 첫째로는 韓半島를 중심으로 「亞·太경제협력체」의 결성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금년 1월 日本의 「니이가다」에서 이미 遷東海圈(日本海)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자는 연구세미나가 소련과 일본학자 및 고급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진행된바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과거에 주장되 美日軸의 遷太平洋경제권도 아니고 蘇中위주의 北方시베리아 개발만도 아닌 南北韓의 통일이나 관계개선을 통한 링커역할이 필요하면서 中蘇가 韓國의 기술이나 생활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국의

방대한 수입시장과 東南亞 및 中南美의 자원이 뒷받침되는 「亞太經濟圈」이 한국경제가 主役이 되어야 살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걸프戰爭으로 잠시 침체된 아시아 특히 한국경제에 곧 景氣活性化를 되찾아 오는 과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국내적인 과제로서 國際化에 적극 대처해야 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너무나 시급하고 당연하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항하려면 단순히 농산물 뿐만아니라 知的소유권이나 文化산업, 知識産業(예컨대 大學에 이르기까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國際競爭力을 키워나아가야 할 일이다.

과거에 「케네디라운드」나 「東京라운드」가 단순히 關稅장벽을 헐고 輸入自由化를 위시로 外換 및 資本자유화나 때로는 非關稅障壁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을 국제무역정책의 강요이었다면 분명히 「우루과이라운드」는 오늘날 고도의 하이테크貿易이나 서어비스貿易을 물밑듯이 터버리고 한국등 新興工業國이나 先進國들에게 미국의 新國家主義와 이른바 多國의企業들의 거대자본이 新重商主義를 결합시켜서 석권하려는 새로운 局面轉換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경우 미국의 新保護주의도 문제가 아니고 多國籍석유독점자본도 홀로 세계를 움직일 수

는 없는일임으로 결국 競爭對立과 和解協力을 서로 共存시키는 길이 활력소라고 할 것이다.

셋째로 韓國經濟는 경쟁력과 自生力을 국제화 속에서도 더욱 절실하게 챙겨 보아야 될 일이며 이를 위해서 정책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겠다. 부정이나 비리 또는 비생산적인 이권이나 권력과의 결탁에 의한 경제활동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일이다.

自由民主主義도 말그대로 株式은 그나라의 경제를 틀림없이 가늠해주는 지표로서 또는 企業가격이요, 工場가격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물타기나 깡통주식이 통용되고 폭락이 없어야 될 줄안다. 그럴려면 土地와 같은 疑制資本을 가지고 자본축적을 이루는 투기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金融 및 土地實名制는 당연히 무리없이 실행되어야 할일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경기활성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조건이 인플레이제이며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상품의 품질개선 및 기업에대한 충분한 자금지원등이 엄격하게 노동생산성향상의 차원에서 지원되어 확대재생산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國際的으로 國內的으로 또는 經濟政策이나 企業經營이 다같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과정이 중요한 일이다.

바로지킨 질서의식, 비로서는 우리사회